

# 대순진리회 신관념(神觀念)의 특성

윤용복\*

서울대학교 ·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신관념의 유형과 기능
- III. 대순진리회의 신관념
- IV. 대순진리회 신관의 특성
- V.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종교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각 종교에서 신봉하는 신앙대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대부분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은 신(神)이란 존재이다. 신에 대한 믿음을 지닌 종교에서 신이란 그 종교의 핵심적 현상의 하나이며, 각 종교 신도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각 종교에서 믿는 신(神)에 대한 관념을 파악하는 것은 그 종교를 가장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일까? 다시 말한다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사람들에게 어

---

\* 철학박사, 한국종교사회연구소 소장

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궁극적 실재를 신이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존재, 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는가? 사실 이러한 기준들은 모호하다. 종교에 따라 이들 모두가 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예로 든다면 궁극적 실재가 바로 하느님을 뜻하므로 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힌두교의 궁극적 실재인 브라흐만이나 노장의 도(道)는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sup>1)</sup>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예를 들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를 신이라고 부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에서 사후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들은 신이 아니다. 살아있는 인간을 신으로 믿는 사례들도 있다<sup>2)</sup>는 것을 고려한다면, 신에 대한 관념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사람들은 어떤 존재를 상정해서 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마치 모두가 신이 어떤 존재인지 함의된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것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교이거나,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이거나 간에 모두 마찬가지인 듯하다. 그러나 앞서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상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된 신에 대한 개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각 종교에서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의 모습은 다양하며, 또한 신들에 대한 호칭도 서로 다르다. 흔히 종교정의의 어려움은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종교가 다양하다는 것은 이렇듯 신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다

1) 윤이흠은 신관의 유형을 10가지로 분류하면서 힌두교의 브라흐만과 아트만, 그리고 불교의 보살과 여래, 자연과 우주의 규범으로서의 천(天)을 지칭하는 중국의 상제(上帝) 등을 우주규범이 내재된 내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윤이흠, 「신관의 유형」,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신화와 역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26-31 참조.

2) 예를 들면 일본인의 경우 살아있는 인간을 신으로 믿고 있는 경우도 있다. 박규태, 「일본인의 신관념 - 생신(生神)관념을 중심으로」, 한국종교연구회 편, 『한국종교연구회보』 7 (1996), pp.59-62.

양한 종교현상들이란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신을 인식할까? 신을 인식하는 과정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신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 신도들이 인식하는 알라에 대한 관점은 무함마드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무함마드의 경험을 전해 듣고 그의 가르침에 따른 종교행위를 하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바른 종교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함마드의 경험이란 유대기독교적 세계관과 아랍인들의 사유의 맥락, 즉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문화와 세계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종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려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유교, 불교, 기독교를 비롯한 다양한 신종교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한국 사회의 대표적 신종교의 하나인 대순진리회에서 신봉하고 있는 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구한말 증산 강일순으로부터 비롯되는 증산계열의 대표적 신종교 교단 가운데 하나이다.<sup>3)</sup> 증산계열의 교단은 증산 사후 생겨나기 시작하여 2000년대까지 1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분열 현상을 나타냈다. 한국의 신종교 계열 가운데 가장 많은 교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교단들에서 신봉하는 신에 대한 관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각 교단들은 분열하면서 독자적으로 교리체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이유로 모든 증산계열 교단들의 신관념을 반영하기보다는 대순진리회라는 특정 교단을 중심으로 신에 대한

3) 이 글은 대순진리회의 창교과정이나 발전사를 거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대순진리회의 역사과정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대순진리회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특징은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고병철, 「대순진리회의 전개와 특징」,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편, 『한국 종교교단 연구Ⅱ』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관념을 바라보려 한다. 따라서 연구 자료는 대순진리회와 관련된 연구와 대순진리회에서 발행되는 문헌을 중심으로 하되, 부수적으로 필요할 경우 다른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sup>4)</sup>

연구의 순서는 우선 신관의 일반적인 유형들을 살펴보고 기존의 학자들이 분류한 신관의 유형들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 검토는 대순진리회에서 신봉하는 신관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순진리회의 신관을 검토할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 신봉하는 신적 존재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양한 신적 존재들을 모두 검토하기보다는 총체적인 안목에서 검토하려 한다. 즉, 다양한 신적 존재들을 최고신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이 최고신에 대한 관념을 다른 종교들의 신관념, 그리고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신관의 유형들과 비교 검토해서 대순진리회만의 신관념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된다면 다른 종교의 신들과 구별되는 대순진리회만의 신관념의 독특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 II. 신관념의 유형과 기능

서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존재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극단적인 경우 동일한 존재를 놓고서도 어떤 사람은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신관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은

4) 경전의 경우를 예로 든다할지라도, 『대순전경』, 『선도진경』, 『증산대도전경』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대순진리회에서 발행된 『전경』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현재 대순진리회도 크게 4개의 종파로 분열되어 있는데, 각 종파에서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교단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신앙 대상만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신에 대한 관념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에 대한 관념은 도대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신을 정리해서 분류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유형으로는 신의 숫자에 따라 일신교와 다신교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다신교의 경우 고대 그리스나 로마, 고대 근동과 이집트의 종교에서 볼 수 있는 다신교, 그리고 인도의 다신교<sup>5)</sup>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며, 범신론의 경우도 다신교적이면서도 또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 및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는 유일신교의 경우도 모두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 신을 인격적(형태적) 존재와 비인격적 존재(비형태적 존재)로 나누거나 고차원적 신과 저차원적인 정령적 신의 형태로 나누는 등의 분류도 있을 수 있다.<sup>6)</sup>

한편 윤이흠은 신관을 존재론적 관점과 해설적 관점에 따라 10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세상에서 부르는 신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궁극적 실재는 마나(mana)와 같은 초월적 힘으로 경험되고, 그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존재(Being)와 규범(Norm)으로 나뉜다고 한다. 존재는 다름 아닌 인격적이며 인간외적인 신을 말하고 규범이란 우주적 규범(Cosmic Norm)으로 중국에서 말하는 천(天)으로서의 상제나 인도의 브라흐만과 아트만을 말한다. 그는 이러한 규범적 원리를 인간에 내재된 신으로 분류하고 있다.<sup>7)</sup>

5) 인도의 힌두교는 다신교 가운데서도 단일신교(henotheism), 또는 교체신교(kat henotheism)라고 하는데, 교체신교는 고대인도의 종교를 가리키는 말로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되, 그 가운데 특별히 어떤 하나의 신이 제사 때에 중심신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제사가 끝나면 그 신은 다시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신 가운데 하나가 되며, 다음 제사 때에는 또 다른 신이 중심신이 될 수 있다. 즉, 제사 때마다 매번 새로운 신이 주신으로 교체된다는 의미에서 교체신교라고 한다.

6) 안진태, 『신화학 강의』 (서울: 도서출판 열린 책들, 2001), pp.25-26.

이미지 혹은 메타포에 따른 유형 구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잘 드러날 수 있는 구분이다. 그 첫 번째가 군주론적 모델(monarchical model)로서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신 담론인데, 이에 따르면 신은 왕, 아버지, 심판자 등으로서 인간은 신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수동적이며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두 번째는 이신론적 모델(deistic model)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델에 따르면 신은 이 세계를 시계처럼 설계하고 만들었으며, 이 세계는 시계의 부속이 전체로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신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다. 신은 단지 세상을 창조했을 뿐 더 이상 관여하지도, 관여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대화적 모델(dialogic model)이다. 이 유형의 신관은 신의 지고성이나 능력보다는 인간과의 관계의 초점을 맞춘 인격성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유기적 모델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세계는 상호의존적인 살아있는 거대 유기체로 비유되며, 신도 일방적으로 무엇을 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이 세상과 상호 의존하는 존재이다.<sup>8)</sup>

한편 증산계열 종교들에서 신봉하고 있는 신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몇몇 연구들도 있지만 이들은 대체로 증산신학적인 입장에서 연구된 것들로 객관성과 엄밀성 등을 결여했다는 한계를 지닌다.<sup>9)</sup> 이경원은 『전경』에 언급되고 있는 신들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 기준에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신들을 위계상의 분류, 거주 영역상의 분류, 기능상의 분류, 가치개념상의 분류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그

7) 그는 존재론적 관점을 다시 인간외적 존재와 인간내적 존재로 구분하고 인간외적 존재는 1. 직접 경험신, 2. 원격신, 3. 유일신, 인간내적 존재는 4. 내재신으로 분류하였으며, 해설적 관점은 다시 사물 기원의 존재와 일상 경험적 존재의 둘로 구분하고, 사물 기원의 존재는 5. 질료신, 일상 경험적 존재는 6. 귀신, 7. 기능신, 8. 영물신, 9. 영웅신, 10. 도인신격(신선, 도사 등)의 10가지이다. 윤이훈, 앞의 글, p.12.

8) 신재식, 「기독교 역사 속의 신 담론」,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종교와 역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참조.

9) 이에 관해서는 김탁, 「증산교의 신관」, 『증산교학』 (서울: 미래향문화, 1992), pp.52-55 참조.

특성에 따라서 하위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sup>10)</sup> 이 분류에 따른다면 신들이 각각의 분류에 모두 나뉘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첩되는 경우도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기능상의 분류를 제외한다면 나머지의 기준들도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가치개념이란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가치개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기준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것은 증산 계열 종교들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다른 종교에까지 확대되기 곤란한 면도 있기에 한계를 지닌다.

이처럼 신의 유형들을 분류했을 때 각각의 한계점은 있지만, 좀처럼 이해의 가닥을 잡을 수 없는 다양하면서도 난해한 신관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의 범위를 제공해 준다. 특히 특정 종교의 신에 대한 관념을 파악할 때 다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유형화의 문제점은 이 안에 신에 대한 모든 관념을 다 담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중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딱히 어느 범주에만 들어간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신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람에 따라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서로 신이라거나 또는 신이 아니라는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기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유형이란 것도 상황에 따라서 작업가설적으로 이해를 위한 유형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현상을 범주화하고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은 유형이나 범주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기서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기보다는 앞에서 제시된 유형들을 기준으로 대순진리회의 신관념을 파악해 볼 것이다.

10) 이경원, 『한국의 종교사상 - 궁극적 실재의 문제』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0), pp.387-391.

### Ⅲ. 대순진리회의 신관념

대순진리회의 신앙대상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 이하 증산상제, 또는 상제로 함)<sup>11)</sup>라고 한다. 여기에서 상제란 바로 증산 강일순을 지칭하는데, 신앙대상에 대한 이런 명칭부여는 후일 증산의 종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정산 조철제에 의해서였다.<sup>12)</sup> 대순진리회에서는 매년 일정한 날이 되면 정기적으로 의례를 지낸다. 이 때 지내는 의례를 치성이라고 하는데, 치성을 올리는 대상에는 증산상제이외에도 다른 많은 신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신격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그 기능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典經)』에 보이는 신과 관계된 용어로는 신명(神明), 신장(神將), 신(神), 귀신 등이 있다. 우선 이 용어의 의미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신명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속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신들림의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신명 난다’, ‘신바람 난다’고 할 때 주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인데 본래 무속 등에서 주로 사용되던 것이 현대세계에서는 종교적인 의미와 무관하게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흥겨운 감정이 고조에 이르는 것을 ‘신명이 난다’, ‘신이 난다’, ‘신바람 난다’고 한다. 이 때 ‘신바람’, ‘신’, ‘신명’ 등은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신명은 천신(天神)과 지기(地氣), 즉 하늘과 땅의 신령이라는 존재를 의미한다. 천지신명이라고 할 때의 그 신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1) 이러한 명칭의 기원이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기에 여기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http://www.idaesoon.or.kr/instr/instr01.asp?PageInfo=M2S01&SubInfo=0100>, (대순진리회 홈페이지)에서 명칭의 유래나 의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이 명칭을 줄여서 간단히 구천상제, 또는 상제라고 칭한다. 상제란 증산 강일순을 말하는데, 종파에 따라서는 상제와 함께 도주인 정산 조철제와 도전인 우당 박한경도 신앙대상으로 삼는 곳도 있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상제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논할 것이다.

12) 박마리아, 「대순진리회와 도교의 신앙체계에 관한 비교」, 『신종교연구』 24 (2011), p.137.

『전경』에 보이는 신명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인 존재로서의 신명이라고 본다. 신명과 신의 용례는 범위상의 차이로써, 신명은 일반적이고 포괄적 개념인데 비하여 신은 기능적, 세부적, 구체적으로 쓰이고 있다. 신명이라는 용어는 인간과 대칭적으로 사용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천지신명이라 일컫기도 한다. 신은 황극신, 선령신, 중천신, 지방신 등과 같이 개별적인 개념으로 부르고 있다.<sup>13)</sup>

중천신은 후사를 못 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속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sup>14)</sup>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리라.<sup>15)</sup>

다시 말해서 신명은 현재 우리가 보통명사로 부르는 신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신은 앞에 기능이나, 지역, 유래, 특성 등의 의미를 붙여서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명이란 신, 신장, 귀신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신앙대상인 상제도 마찬가지로 신명인 상제도 신명의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신관이란 곧 대순진리회의 신명관이며, 본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명을 신이라는 의미와 동의어로 사용할 것이다.

한편 『전경』에는 다양한 신장들이 등장한다. 오방신장(五方神將)<sup>16)</sup>, 육정(六丁)신장<sup>17)</sup>, 괴질신장<sup>18)</sup>, 동서남북 중앙신장(東西南北中央神將)<sup>19)</sup> 등 명칭도 다양하다. 이외에 이십사장(二十四將)과

13) 辛一鎬, 「神明에 대한 小攷」, 대순진리회연구위원 편, 『대순논집』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p.19.

14)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공사 1장 29절.

15) 같은 책, 교법 3장 2절.

16) 같은 책, 행록 2장 10절.

17) 같은 책, 교운 2장 34절.

18) 같은 책, 제생 1장 23절.

19) 같은 책, 제생 1장 11절.

이십팔장(二十八將), 등도 신장으로 언급되며,<sup>20)</sup> 사십팔장(四十八將)이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신장으로 이해된다. 또한 개벽주(開闢呪)<sup>21)</sup>에도 많은 신장들이 등장하고 있어 신장들이 신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십사장과 이십팔장의 기원<sup>22)</sup>을 보면 신장이란 신들의 세계에서 장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백(魄)으로 일정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 귀신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행위를 한다는 면에서 신적 존재로 의례의 대상이 된다. 대순진리회에서 신이나 신장, 귀신 등은 각기 독립적으로 숭배되지 않고 모두 한꺼번에 의례를 통해 숭배되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을 모두 신명으로 통칭해서 언급할 것이다.

그런데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신명들은 천지에 가득 차 있어서 없는 곳이 없다. 신명들은 우주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우주가 운행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다시 말해서 신명은 온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인간도 모두 신명의 도움을 받는 존재이다. 그러나 신명은 무조건 사람이 이롭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신명은 정해진 바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sup>23)</sup>

분에 이기지 못하여 어울려 싸우는 자는 하등 사람이니 신명의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sup>24)</sup>

20) 辛一鏞, 앞의 글, p.25. 장병길, 『대순진리의 진의』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pp.165-166.

21) 『전경』, 교운 2장 42절.

22) 이십사장은 당 태종의 24명의 신하에서, 그리고 이십팔장은 후한 명제 때 28명의 무장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김탁, 앞의 글, pp.72-73 참조.

23) 『전경』, 교법 1장 29절.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적이 되어 갇나니라.<sup>24)</sup>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 그 대의 성심이 신명에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 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다.<sup>25)</sup>

신명이 작용하는 것은 모두 이치에 정해진 바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치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상제라도 신명의 작용을 어찌할 수 없다. 신명은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즉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명의 고유기능은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대순진리회에서 신명세계를 바라보는 신관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명의 기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명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자기의 고유한 능력만을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도통신은 도통의 능력만을, 병과 관계된 신명들은 병을 고치는 능력만을 지닐 뿐이다.<sup>27)</sup>

그렇기에 지역이나 기능 등의 측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들은 각기 자신만의 고유한 기능을 지닌 기능신들이며, 모두 상제의 관장 아래 있다.

신명이 어느 곳, 어떤 것에도 다 편재해 있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대순진리회의 신관은 범신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신명이 상제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상제라도 신명의 작용을 어찌할 수 없다면 한편으로 상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상제에 대해 알아보면 드러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상제라는 존재는 대순진리회의 신앙대상이다. 대순진리회의 교리에 따른다면 상제

24) 같은 책, 교법 1장 55절.

25) 같은 책, 교법 2장 44절.

26) 같은 책, 행록 1장 29절.

27)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진리 講話[II]』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pp.160-162.

는 우주 삼라만상을 주재하면서 온 세계를 두로 살피는 전지전능한 신으로 숭배된다. 상제는 그 명칭 그대로 구천(九天)의 가장 존귀한 최고의 존재(天尊)이다. 본래 상제는 구천에 있었지만,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기 위해 현세에 하강한 존재이다. 『전경』에 나타난 상제의 하강이유는 천지신명이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모여서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기에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8)</sup>

따라서 상제로서의 증산이 인간세상으로 하강한 이유는 혼란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된 인류를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함이다. 증산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천지공사라는 대역사를 행하게 되는데 대순진리회에서는 증산의 천지공사 이전을 선천, 그리고 이후를 후천시대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상제는 이처럼 핵심적 사업인 천지공사를 행하려 할 때 천지대신문을 열고 신명들을 모이거나 흠어지게 하고, 신명들을 회집해서 그들의 영(靈)을 듣고, 또한 사람들이 신명으로부터 호위를 받도록 하는 일도 하였다. 또한 서양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49일 동안 동남풍을 일으키도록 하게 한 것도 상제의 의지에 의해 신명들이 움직이도록 한 것이라 한다.<sup>29)</sup>

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보내어 역사를 일으키리니 이 뒤로는 외인들이 주인이 없는 빈집 들듯 하리라. 그러나 그 신명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의 일을 제가 다시 주장 하리라.<sup>30)</sup>

이제부터 동학 신명들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 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王侯將相)의 해원이 되리라」 하시고 종이에 글을 쓰시며 외인의 출입을 금하고 「훗날에 보라. 금전소비가 많아질 것이며 사람도 갑오년보다 많아지리라. 풀어 두어야 후천에 아무 거리낌이 없느니라」고 말씀은 맺으셨도다.<sup>31)</sup>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

28) 『전경』, 공사 1장 9절, 교운 1장 9절, 예시 1절.

29)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진리 講話[ I ]』,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p.174.

30) 『전경』, 예시 1장 25절.

31) 같은 책, 공사 2장 19절.

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  
 하시고 물썰틈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sup>32)</sup>

이처럼 신명들은 상제의 지휘를 받는 신적 존재들이다. 또한 신성, 불, 보살 등도 천지의 여러 신명들과 동일시되고 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없기에 상제에게 하소연한 것이다. 특히 상제는 처음부터 자신이 세상의 혼란을 바로 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최제우를 시켜 바로잡아보려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자 결국 스스로 이 일을 떠맡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sup>33)</sup> 이를 종합하면 결국 상제는 모든 신적 존재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존재로 다른 신명들을 지휘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존재이다.

한편 상제는 삼라만상을 주재하는 최고의 신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지는 않는 존재이다. 직접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신명들의 몫이다. 『전경』에 나타나는 상제와 신명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sup>34)</sup>

상제께서 이런 말씀을 종도들 앞에서 하신 적이 있느니라. 「내가 출세할 때에는 하루 저녁에 주루 보각(珠樓寶閣) 十만 간을 지어 각자가 닦은 공덕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각자의 옷과 밥을 마련하게 하리라. 못 앉을 자리에 앉은 자는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 내리라.」<sup>35)</sup>

32) 같은 책, 예시 12절.

33) 같은 책, 예시 1절.

34) 같은 책, 교법 3장 24절.

35) 같은 책, 교법 3장 44절.

상제가 직접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신명이 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신 고유의 능력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그것은 상제의 명령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상제가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신명을 골라서 재배치해서 쓰게 된다. 상제는 신명계를 지키는 신명을 배정함에 있어, 선도의 종장(宗長)으로 최수운을 세우고, 불도의 종장으로는 진목을 세우고, 유도의 종장에는 주희암을, 그리고 서도의 종장으로는 이마두를 세웠다고 한다.<sup>36)</sup> 또한 명부(冥府)의 신명들을 주관하여, 요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명부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세워졌다. 전명숙에게 조선국 명부, 김일부에게 청국 명부를, 최수운에게 일본국 명부를 맡겼다는 것이다.<sup>37)</sup> 상제에 의해 유불선뿐만 아니라 기독교까지도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되었으며, 명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국가별로 새롭게 책임자가 임명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종교와 국가까지도 아우르고 있다는 상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신명계에도 위계질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신명계에 위계질서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그 신명의 역할이 절대적이기도 하다. 그것은 상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 이웃 아이와 먹으로 장난을 하다가 그 아이가 나에게 지고 울며 돌아가서는 다시 그 서당에 오지 않고 다른 서당에 가서 글을 읽다가 얼마 후 병들어 죽었도다. 그 신이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나에게 해원을 구하므로 그럼 어찌 하여야 하겠느냐 물은즉 그 신명이 나에게 왜복을 입으라 하므로 내가 그 신명을 위로하고자 입은 것이니라.<sup>38)</sup>

36) 같은 책, 교운 1장 65절.

37) 같은 책, 공사 1장 7절.

38) 같은 책, 행록 4장 54절.

원한을 푸는데 있어 상제의 절대권능으로 저절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제가 모든 신들의 최고 정점에 있는 지고적 존재라 할 지라도 바로 그 신명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함을 보여준다. 상제는 천지공사, 다시 말해 우주의 전체적인 틀을 새롭게 짜 맞추어 새 세계를 열었지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모두 신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sup>39)</sup>

상제께서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 되는 연고이니라」 말씀하셨도다.<sup>40)</sup>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sup>41)</sup>

상제는 신명계를 재배치하고, 신명계의 책임자를 새롭게 임명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도수를 새롭게 고쳐서 철저하게 재배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도수란 무엇을 의미할까?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힌두교의 다르마, 불교의 법, 노장사

39) 같은 책, 공사 1장 3절.

40) 같은 책, 교법 3장 1절.

41) 같은 책, 교법 3장 4절.

상에서 말하는 도, 유교에서 말하는 천리(天理) 등으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다르마나 법, 도는 그 자체 우주 자연의 법칙이므로 초월적 신을 비롯한 누군가가 뜯어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천지의 도수를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설명한다면 과거 선천의 도수는 인간과 신명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우주적 질서이다. 이것을 천상, 지상, 인간 등 세 세계의 모든 대권을 지닌 상제가 나서서 과거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 것이다. 상제는 하늘, 땅, 인간계, 즉 세 세계의 대권을 쥐고 뜯고, 조화하고, 풀고, 세우는 일을 한 것이다. 신명들을 조화할 때에 천권(天權)을, 땅의 기운을 돌릴 때에는 지권(地權)을, 그리고 인간의 원을 풀기 위해 인간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일을 수행한 것이다.<sup>42)</sup> 이것은 어느 한 세계, 즉 하늘이나 땅, 인간계 가운데 어느 하나만의 질서를 잡아서는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삼계의 질서가 모두 바로 잡혀야 함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신명계와 인간계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명의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명이 인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sup>43)</sup>

선령신이란 각 성이나 씨족의 선조가 되는 신을 말한다. 그런데 인간의 싸움이 선령신들의 싸움이 되고, 다시 선령신들의 싸움의 결과가 인간들의 싸움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신과 인간은 상호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결국 신과 인간은

42) 『대순진리 講話[Ⅱ]』, pp.145-146.

43) 『전경』, 교법 1장 54절.

상호 교류하여 존재하는 주체들이고, 인간행위의 근간이 되는 것은 신이며, 인간은 또한 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주체로서 신이 의탁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신과 인간은 서로 화합하고 상통함으로써 만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종지의 하나인 신인조화(神人調化)이다.<sup>44)</sup>

이렇듯 대순진리회에서 보는 신에 대한 관념은 최고신인 구천상제를 중심으로 하위의 신명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신명들은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지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 IV. 대순진리회 신관의 특성

대순진리회에서는 다양한 신적 존재들을 신봉하고 있다. 그러면 서도 신앙의 대상은 구천상제만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은 대순진리회만의 교리적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순진리회에서 바라보는 신들의 특성에는 어떠한 면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앞에서 언급한 신관의 유형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가장 평면적인 분석으로 대순진리회의 신관념의 유형은 다신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고신이 있고 그 아래 하위신들(다양한 신명들)이 분포해 있으며, 각각의 신명은 고유의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각각의 신들이 이동시킨다거나, 최고신인 상제의 권한으로 신명들을 이용해 이적

44)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1), pp.125-127.

을 보인다는 점<sup>45)</sup>에서는 다소 다른 면을 보인다. 또한 우주의 질서를 최고신이 스스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점도 차이라고 본다. 이런 점들은 주로 유일신교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고신의 자리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인도의 힌두교와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 상제는 항상 최고신으로 그 자리에 있을 뿐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대순진리회의 신관념은 윤희의 신관유형에는 다소 모순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윤희는 브라흐만과 같은 우주적 규범도 신의 한 유형으로 보면서 그것을 최고신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은 상제이지만, 상제가 우주적 규범은 아니다. 상제는 어디까지나 인격적 신이면서 인간과 소통하는 존재이다. 상제가 변혁을 시도해서 새롭게 재배치한 도수라는 것이 오히려 우주적 규범에 해당된다. 대순진리회의 신관에 따르면 이런 우주적 규범도 상제의 권능 앞에서는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 구조를 지닌다. 또한 대순진리회에서 이런 규범을 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미지 혹은 메타포에 따른 유형 구분에 따른다면 대순진리회의 신관은 유기적 모델의 유형에 잘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세계는 상호의존적인 살아있는 거대 유기체이며 신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그렇지만, 최고신인 상제에 의해 자연의 질서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신적 존재들이 위계질서를 지닌다는 점에서도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유형적인 특징이외에 대순진리회의 신관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순진리회에서 신봉하는 신명들

45) 상제는 눈비를 내리게 하거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구름을 흩어지게 했다가 다시 모으거나 번개가 치는 것을 마음먹은 대로 하는, 즉 일기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大巡聖蹟圖解要覽』, pp.7-8.

의 기원은 우리 민족이 믿어왔던 유불선의 종교들은 물론이고 무속과 같은 민간신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더구나 당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던 서교, 즉 천주교의 이마두<sup>46)</sup>까지도 망라한 것은 증산이 모든 종교의 신앙을 다 아우르려 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다음의 『전경』 구절에서도 알 수 있다.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측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도가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최 풍헌(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진묵(震默)이 당하였으면 석 달이 넘지 않고, 송 구봉(宋龜峰)이 맡았으면 여덟 달에 평란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불·유·의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 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잡지 못하리라.<sup>47)</sup>

동서양의 교류로 세계가 한 집안이 되어 신도(神道)를 써야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유불선 가운데 하나의 법술만을 사용해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동서양을 망라하는 차원에서 교류가 일어나 그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의 양상도 다양하고 다기해졌다는 것이다.<sup>48)</sup> 이런 이유로 증산은 기존의 유불선 뿐만 아니라 서교의 법까지도 다 포함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에서 지니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은 기본적으로 도교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신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대순진리회의 신관념에는 궁극적 실재의 인격적 요소

46) 서양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를 말한다.

47) 『전경』, 예시 73절.

48) 고남식, 『한국인의 정체성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6 (2003), p.75.

가 비인격적 요소보다 우위에 있다. 예컨대 유대교나 기독교, 및 이슬람의 경우 궁극적 실재는 유일신인 하느님으로 인격적 존재이다. 그렇기에 우주적 규범이 언급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은 유일신인 하느님의 의지에 좌우된다. 그러나 인도나 중국, 그리고 한국과 같은 지역에서는 인격적 요소를 갖춘 신들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힘이나 존재, 즉 궁극적 실재인 브라흐만, 다르마, 도와 같은 비인격적인 우주적 규범이 있다. 그런데 이런 우주적 규범은 어느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엄격한 법칙이다. 초월적 존재인 분다나 보살도 그 규범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때 우주적 규범은 보통 말하는 인격적 신들을 초월하는, 또는 그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힘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유일신 종교에서의 궁극적 실재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다신교적 종교에서 궁극적 실재는, - 모든 다신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 비인격적인 우주적 규범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순진리회의 신관은 비인격적 실재로서의 우주적 규범을 인정하면서도 인격적 존재인 상제가 그 규범을 재배치한다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되었지만, 비인격적 실재로서의 우주적 규범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상제가 우주적 질서를 재배치한 것, 즉 하늘과 땅의 도수를 뜯어고쳐서 새롭게 짜놓았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비인격적인 궁극적 실재인 우주적 규범을 상정한 종교에서는 신들이 그 규범을 초월할 수 없었지만, 대순진리회의 신앙대상인 상제는 천지도수를 재배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상제의 권능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독특한 대순진리회만의 신관이 아닐까 여겨진다.<sup>49)</sup>

49) 물론 도수가 꼭 천지도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전경』에는 도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증산의 경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정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도수를 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증산의 경우 해원도수, 음양도수, 문왕의 도수, 무당도수 등의 용례로 사용하였고, 정산의 경우에는 백일도수, 담벳대도수, 인덕도수, 잠복도수, 남월도수 등의 용례로 사용하였다. 전후의 문맥으로 보면 주로 법, 또는 방법, 방식 등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천지도수로 사용된 증산의 후천개벽 공사를 중심으로 이해하였다.

세 번째의 특징은 대순진리회의 신들은 다양한 기원을 지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간적 기원을 지닌 신들이 많으며, 특히 인간이 신격화되는데 아무런 거부감도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된 이십사, 또는 이십팔 신장의 기원을 보면 이런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sup>50)</sup> 그렇기에 신명의 존재는 다분히 인격적이며, 신명들은 상제의 주재 하에 천지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로 믿어진다. 상제의 주재 하에 있으면서도 신명은 또한 인간이나 상제로부터 일정한 예우를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sup>51)</sup> 또한 이런 근거로 인해 신명계와 인간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네 번째로 신명이 인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sup>52)</sup> 인간계에서 벌어진 사건이 신명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간이 신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인간계의 운명이 변화될 수도 있고 신명계도 변화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증산은 인간이 신명을 잘 대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서교는 신명의 박대가 심하니 감히 성공하지 못하리라.<sup>53)</sup>

조선과 같이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도다.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제각기 소원에 따라 부족함이 없이 받들어 줄 것이므로 도인들은 천하사에만 아무 거리낌 없이 종사하게 되리라.<sup>54)</sup>

이런 일이 있는 후 어느 날에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오늘 청국 만리창 신명이 오리니 잘 대접하여야 하리라」고 이르셨도다.<sup>55)</sup>

50) 각주 23 참조.

51) 辛一鎬, 앞의 글, p.22.

52) 각주 44 참조.

53) 『전경』, 교법 1장 66절.

54) 같은 책, 교법 3장 22절.

55) 같은 책, 예시 69절.

그렇기에 대순진리회에서 언급한 신앙의 대상은 구천상제이지만, 의례를 행할 때, 그 대상은 구천상제 뿐만 아니라 모든 신명들이 대상이 된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신명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신명은 정해진 바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그것은 마치 고대 인도의 제사중심의 종교인 브라만교를 연상시킨다.<sup>56)</sup> 그러나 대순진리회와 브라만교와의 차이는 살아 있는 인간을 신으로 부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신명이 인간의 영향을 받는 결정적인 것은 선령신들이 자손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인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sup>57)</sup> 대순진리회의 교리에 따르면 선령신들이 자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자손이 도를 닦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손이 도를 통해서 지상신선이 되면 하늘의 조상신들도 후천세계에서 신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58)</sup> 다시 말해서 선령신이 비록 하늘의 신명이지만 후손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신선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신명계가 인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신들이 초월적 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인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며, 또한 신명과 인간의 상하관계보다는 상호평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말로 이를 통해 대순진리회의 인간 중심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언급될 수 있는 특징으로는 대순진리회의 신명관은 범신론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신명들이 각자 고유의 자리에서 고유의 주어진 기능만을 행하면서도 정해진 바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법칙이 때로는 상제에 의해 변할 수도 있고, 인간계의 영향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신명의 움직임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6) 제사중심의 고대 인도종교에서는 브라만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신들조차도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따라서 브라만들은 신들을 움직이는 존재, 즉 살아있는 신으로도 불렀다.

57) 『전경』, 교법 2장 36절.

58) 윤용복, 「대순진리회의 조상의례와 특징」, 『종교연구』 69 (2012), pp.156-157.

## V. 나가는 말

종교마다 초월적 존재, 또는 성스런 힘에 대해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다. 2장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힘이나 존재들을 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학의 가장 기본적 입장은 믿는 자의 관점에서 신앙을 조망해 보는 것이다. 불교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관점에서 존중해줘야 할 것이다. 비록 필자도 보살이나 행동하는 불다는 신적 존재라고 부르고 싶지만 그것은 내 주장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우주적 규범은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그 규범에 순응하려 할 뿐 우주적 규범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교적 의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외의 인격적 신의 존재를 믿는 종교에서는 그 신들에 대한 의례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서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다양한 신명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우주적 규범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주적 규범을 인식하면서도 신의 존재를 동시에 믿고 있는 종교에서 신들은 대부분 그 규범에 예속되어 있다. 기독교를 비롯한 유일신 종교에서는 그러한 우주적 규범보다는 유일한 신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에서 신봉하는 상제는 그러한 우주적 규범도 초월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이 사실상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만하다. 물론 앞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거론했기에 그들이 모두 대순진리회만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든 우주적 규범을 초월한 상제의 권위가 가장 독특한 모습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상제가 삼계의 대권을 쥐고 있는 지고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 아래 있는 신명에게도 예를 다한다고 하는 특징

도 있다.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인간에게도 적용되어 신명이나 인간 모두에게 예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종교라는 대순진리회의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 가지 요청되는 점은 대순진리회의 신학적인 부분이다.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믿고 있는 신명들은 그 기원도 다양하고 기능도 다양하다. 도교적 신명, 유교적 신명, 불교적 신명, 기독교적 신명, 그리고 증산 이전의 동학과 관련된 신명과 함께 우리 전통 무속과 관련된 신명들까지 다양하다. 신들만을 놓고 보면 당시 전해진 모든 종교와 관련된 신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것은 유불선을 종합한 최제우의 동학과 비슷하게 거의 모든 종교를 종합하려 한 시도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모든 종교의 신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해서 곧 이것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합일한 것이라고 하기는 무리다. 따라서 적어도 신관, 즉 대순진리회의 신학적 측면을 좀 더 발전시켜 다양한 종교들을 포섭한 하나의 종교라는 틀을 형성시켜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글에서 사용된 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영어의 god의 번역어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신에 대한 의미는 서구에서 사용하는 신의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종교라는 말의 의미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에 대한 의미도 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신의 의미를 단순히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하기 보다는 기존 동양에서 사용하는 신의 의미와 번역어로서의 서구에서 사용하는 신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비교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에 대한 인식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음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순진리회의 신적 특성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大巡聖蹟圖解要覽』

『대순전경』

『선도진경』

『전경』

『증산대도전경』

고남식, 「한국인의 정체성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6, 2003.

고병철, 「대순진리회의 전개와 특징」,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편, 『한국 종교교단 연구Ⅱ』,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김 탁, 『증산교학』, 서울: 미래향문화, 1992.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진리 講話[Ⅰ]』,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 『대순진리 講話[Ⅱ]』,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박규태, 「일본인의 신관념 - 생신(生神)관념을 중심으로」, 한국종교연구회 편, 『한국종교연구회보』 7, 1996.

박마리아, 「대순진리회와 도교의 신앙체계에 관한 비교」, 『신종교연구』 24, 2011.

辛一鎬, 「神明에 대한 小攷」, 대순진리회연구위원 편, 『대순논집』,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신재식, 「기독교 역사 속의 신 담론」,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종교와 역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안진태, 『신화학 강의』, 서울: 도서출판 열린 책들, 2001.

윤용복, 「대순진리회의 조상의례와 특징」, 『종교연구』 69, 2012.

윤이흠, 「신관의 유형」,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신화와

역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1.

———, 『한국의 종교사상 - 궁극적 실재의 문제』,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0.

장병길, 『대순진리의 진의』,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대순진리회 홈페이지, <http://www.idaesoon.or.kr>

▪Abstract▪

## The perception of gods in Daesoonjinrihoe

**Yoon Yong-bok**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tention of this article is to check for the believers in Daesoonjinrihoe how to perceive the gods who they believe in. For that intention, I explained how the perception of gods in Daesoonjinrihoe is different from the perception of gods in other religions. To make a long story short, because of its polytheism the idea of god in Daesoonjinrihoe is different from monotheism such as Christianity, Islam. In addition, in spite of its polytheism it is different from other polytheism such as the religion in ancient India, especially rig-vedic religion.

In this article it is said that the believers in Daesoonjinrihoe have understood the distinction between Shin(神) and Shinmyung(神明). Nowadays Shin that has been used in Korea, China, Japan, is the word that was translated from English god. Therefore we need to reappraise the meaning of the word Shin. Anyway Shin that is being used in general means Shinmyung in Daesoonjinrihoe. Instead when they say the name of functional gods and the name to which the meaning o

f its origin affixed, the word Shin is used.

Meanwhile, it has the advantage of classifying the ideas of god, but we can't explain all of them through the use of those classifications. I checked some classifications in this article and tried to apply the idea of gods in Daesoonjinrihoe. As a result, each classification has some critical points. Therefore in this article I explained the distinguishing ideas of god in Daesoonjinrihoe from that in other religions, instead of the explaining fitted those classifications.

**Key words** : Daesoonjinrihoe, god, Shin(神), Shinmyung(神明),  
the perception of gods, classification

- ◎ 투 고 일 : 2013년 8월 31일
- ◎ 심 사 기 간 : 2013년 10월 16일~29일
- ◎ 계 재 확 정 일 : 2013년 11월 19일